

IRS NEWS

No. 28

2 0 1 1
M A R C H

WWW.RUS.OR.KR



표지사진: 노브고로드 국립목조박물관의 성모탄생교회



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연구소

INSTITUTE OF RUSSIAN STUDIES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449-791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왕산리 산89 국제지역연구센터 연구동 412호
89 Wangsan-ri, Mohyeon-myeon, Cheoin-gu, Yougin-si, Gyeonggi-do, 449-791
TEL 031-330-4852 FAX 031-330-4851

IRS

Institute of Russian Studies NEWS



한·러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의 조건과 과제 : 러시아의 시각

Международная научно-практическая конференция
Стратегическое партнерство между Россией и Кореей:
условия и перспективы развития. Взгляд из России.

Институт российских исследований
при Университете иностранных языков Хангук
Сеул,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 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연구소 HK 연구사업단 제1차 국제학술회의
(참고기사 5페이지)



2011년을 시작하며...

존경하는 동학제현 여러분!

러시아의 동장군만큼이나 유난히 춥고 길었던 겨울도 서서히 지나가고 어느덧 2011년의 따스한 봄이 다가왔습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이 봄,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계획과 열정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한국의국어대학교 러시아연구소가 2009년 11월 한국연구재단 인문한국(HK)사업에 선정된 지도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1년 남짓한 시간 동안 러시아연구소와 HK 연구진은 다양한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매달 개최하는 국내의 학자들의 초청강연 및 콜로키움을 비롯하여 국제학술회의 1회, 국내학술회의 3회를 개최하는 등 러시아연구소의 학술적 역량을 키우고 학술교류의 지평을 넓히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작년 2010년은 한·러수교 20주년을 맞이한 해였습니다. 한국외대 러시아연구소는 한·러수교 20주년과 HK 연구사업단 출범을 기념하면서 한·러 관계의 현주소와 미래를 조망하는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국제학술회의의 주제는 ‘한·러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의 조건과 과제: 러시아의 시각’이었습니다. 지난 20년간의 양국 관계를 되돌아보고 평가하는 한국과 러시아의 입장은 분명 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내에서 한·러수교 20주년을 기념하는 다양하고 의미 있는 학술행사들이 진행되었으나, 우리의 국제학술회의는 러시아 학자들의 발표를 통해서 모스크바의 시각을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2011년 한국외대 러시아연구소는 새로운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지난 여름 HK 연구진이 러시아 연방 북서관구의 주요 지역들을 답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러시아연방총서」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러시아의 개별 지역에 대한 기본적인 개관서조차 제대로 찾아볼 수 없는 국내의 현실에서 러시아연구소가 발간하는 학술총서는 러시아를 공부하는 학생들과 연구자들을 비롯해 러시아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에게 유익하리라 확신합니다. 학술총서 발간 뿐 아니라, 국제학술회의를 비롯한 여러 학술행사들도 계획 중에 있습니다. 또한 Summer School, 러시아어 토론대회, 시민문화강좌 등 학문의 사회적 기여에 합당한 학술사업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2011년에도 한국외대 러시아연구소가 진일보할 수 있도록 동학제현의 지속적인 조언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의국어대학교 러시아연구소 소장 **홍완석**



초청강연회 & 학술행사

세르게이 쿠르바노프 (Sergey O. Kurbanov) 교수 초청 강연



〈러시아에서의 한국학 연구 동향〉

2010년 9월 18일 러시아연구소 HK 연구사업단은 상트 페테르부르크 국립대학교 동양학부 극동역사학과의 세르게이 쿠르바노프(Sergey O. Kurbanov) 교수를 초청하여 ‘러시아에서의 한국학 연구 동향’이라는 주제로 강연회를 개최했다. 한국사 전문가인 쿠르바노프 교수는 1970 ~ 80년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러시아 내 한국학 연구 방향 변화의 추이를 개관하였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소비에트 시대에 한국의 경제발전이 주로 미국과의 종속관계 속에서 평가된 것과 달리, 페레스트로이카 말기부터는 러시아의 한국에 대한 인식이 변하기 시작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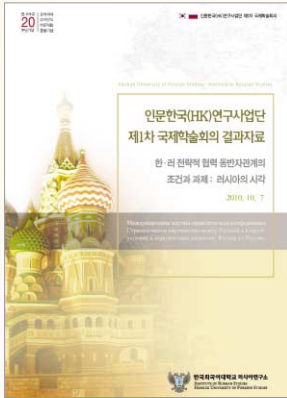
쿠르바노프 교수는 러시아(소련) 학자들이 가장 주목했던 것은 한국의 경제발전과 재벌의 역할이었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스탈린 시대와 유사했던 한국의 군부독재 시대, 그리고 민주화와 경제발전과의 상관관계 역시 러시아 학자들에게 흥미로운 주제였다고 한다. 외국을 분석, 평가하는 러시아 학계의 시각이 국가 정책의 변화로부터 영향을 받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쿠르바노프 교수는 2000년 푸틴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한반도에 대한 등거리 정책이 시작되었고, 이후 남북한 소개 자료나 교과서에서 남북한을 중립적으로 소개하는 흐름이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한편, 2000년대 들어서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기적”과 같은 업적을 부각시키고, 1980년대를 군사독재에서 민주화로의 이행기로 강조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슬라브학회 추계정기학술회의 공동개최

2010년 9월 30일 본 연구소는 한국슬라브학회와 공동으로 추계학술회의를 주최하였다. 이 학술회의에서는 러시아 에너지 자원 개발과 그 환경에 대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HK 연구사업단이 2010년 7~8월에 걸쳐 수행한 러시아 현지조사 사례를 중심으로 러시아 북서관구의 사회, 경제, 문화에 대한 라운드테이블이 마련되었다. 최우익 HK 연구교수는 툰드라 지대에서 자연경제를 유지해 오다가 소비에트 체제에 의해 사회주의적 근대화 과정을 거친 네네츠 자치구가 최근 개혁기에 석유생산 산업의 급속한 발전으로 엄청난 사회경제적 격동을 겪고 있음을 다양한 사회, 경제적 지표를 이용하여 보여주었다. 한편, 김선래 HK 연구교수는 지역연구에 있어서 중앙이나 국가 전체가 아닌 지방(local) 연구의 중요성을 무르만스크 주에서의 현지조사 내용을 중심으로 발표했다.



HK 연구사업단 국제학술회의 개최 : 한·러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의 조건과 과제 : 러시아의 시각



2010년 10월 7일 러시아연구소 HK 연구사업단은 한국외대 서울캠퍼스 애경홀에서 한·러수교 20주년 기념 ‘한·러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의 조건과 과제: 러시아의 시각’이라는 주제로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하여 한·러 전략적 협력의 공유이익과 과제, 동북아 평화와 한·러 협력과의 관계, 그리고 한·러 간 경제-과학기술협력과 문화-인적교류의 현황 및 전망 등을 짚어보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발표자로는 모스크바 국제관계대학교 교수 알렉산드르 니키티(Aleksander I. Nikitin)과 ‘루스키 미르’ 재단 지역 프로젝트국 국장 게오르기 톨로라야(Georgy D. Toloraya), 베이징대학교 교수 구안 귀하이(Guan Guihai) 등 총 10명의 러시아와 중국의 학자 및 전문가들이 참가하였다.

2010년 한·러수교 20주년을 기념하는 다양하고 의미 있는 학술행사가 다수 진행되었으나, 러시아의 시각을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는 점에서 본 학술회의는 다른 학술행사들과 내용적으로 차별화된 국제학술회의였다. 또한 이번 회의는 지난 20년간 한·러관계를 단순히 회고하기보다는 양국 간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 발전을 위한 조건과 과제를 주제로 선정하여 과거와 현재의 양국관계뿐 아니라 미래의 비전까지 제시해 보는 발전적인 논의의 장이었다. 정치, 사회, 문화 등 각 분야에서 러시아 측 발표자들은 지난 20년간 한·러관계의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고, 향후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의 내실화를 위한 세부적, 실질적 과제들을 도출함으로써 한국의 대러정책 수립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했다. 한편, 한국 측 토론자들과 청중들은 발표 내용뿐 아니라 관련 주제 전반에 대해 다양하고 솔직한 질문들을 러시아 측 참가자들에게 제기함으로써 한·러 관계에 대한 한국의 시각과 입장을 전달하고 공감을 얻어낼 수 있었다.

본 연구소는 학술회의가 일회성 행사로 끝나지 않고 그 내용이 러시아 연구자 및 유관기관들에게 전달, 활용될 수 있도록 학술회의에서 이루어진 발표, 토론 및 질의응답 내용을 담은 결과자료집을 발간, 배포하였다.



HK 연구사업단 국내학술회의 개최: 러시아 지방 연구와 한·러 지자체 교류: 방법론과 사례

2010년 11월 12일 러시아연구소 HK 연구사업단은 용인 글로벌캠퍼스에서 '러시아 지방 연구와 한·러 지자체 교류: 방법론과 사례'라는 주제로 국내 학술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는 러시아의 83개 연방주체에 대한 연구를 표방하는 HK 연구사업단의 아젠다와 직결되는 내용을 본격적으로 다루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 뿐 아니라, 그동안 한국의 러시아 지역학 연구에서 국가 단위의 현상분석에 치중했던 것과 달리 스몰렌스크, 사하 공화국, 북카프카스, 툴라티 등 구체적인 미시적인 지방 단위 현상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지역학의 지평을 넓히고 새로운 소개와 담론을 개척하는 데 기여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한국 지자체의 러시아 교류 담당자들이 참가한 사례보고 패널은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한·러 양국의 지자체 간 교류의 현황과 이점, 애로점 등을 공유함으로써 모든 참석자들로부터 뜨거운 호응과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교류 담당자들의 생생한 발표는 본 학술회의에 학문적 성과 외에 실용적, 실무적 의의를 더해주었다. 현재 본 연구소에서는 이러한 실무적 논의의 맥을 살려 양국의 지자체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국내 지자체 국제교류담당부서 간의 협력모임을 준비하고 있다.



4개 연구소 공동학술회의 개최: 한·러 수교 20주년과 동북아 평화

2010년 11월 19일 조선대 사회과학대학 세미나실에서 한국외대 러시아 연구소를 비롯하여 한국동북아학회, 조선대 사회과학연구원, 한양대 아태지역연구센터 등 4개 기관 공동 주최로 '한·러 수교 20주년과 동북아 평화'를 주제로 하는 학술회의가 개최되었다. 광주에서 개최된 이번 학술회의는 한·러 수교 20주년의 의미를 지방 차원으로 공유, 확산했다는 측면에서 뜻 깊은 자리였다. 또한, 서울과 지방을 아울러 동북아와 러시아를 연구하는 국내의 대표적 학회 및 연구기관들이 이번 행사를 공동으로 준비했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번 행사를 계기로 4개 주최기관 사이의 더욱 폭넓은 교류와 협력이 기대된다. 회의에서는 양국관계 20년의 결산과 함께 양국관계의 건설적인 발전방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있었으며, 동북아 지역의 안정과 평화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도 함께 토론되었다.



이양구 국무총리실 기획조정관 초청 콜로키움

러시아연구소는 2011년 2월 17일 용인 글로벌캠퍼스 국제사회교육원 연구동 204호에서 이양구 국무총리실 기획조정관(前 알마티 총영사)을 초청하여 "러시아의 극동시베리아 개발과 우리 정부의 대응"이라는 주제로 콜로키움을 개최하였다. 이번 콜로키움에서 이양구 기획조정관은 러시아 정부가 극동시베리아 개발에 대한 적극적인 개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외국기업의 투자 유치 확대를 위해 제도적 개선을 시도하는 등 국가적 차원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대응하여 우리나라도 정부와 기업들이 국가차원의 빅딜(Big Deal)과 패키지딜(Package Deal)을 통해 총체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문화상대주의에 입각한 현지문화에 대한 이해와 러시아 내 인적 네트워크 구축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2010년도 2학기 특강

- ▶ 주최 _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러시아·CIS학과, 동번역대학원 한노과
- ▶ 후원 _ 한국외대 러시아연구소

일 자	내 용 / 발 표 자	장 소
2010. 09. 03.	제1강: 러시아 권력구조와 경제발전의 함수관계 제2강: 러시아의 북한 핵개발 평가 및 해결 입장 / 박종수 (상트 페테르부르크대학교 교수)	대학원 411호
2010. 09. 10.	제1강: 러시아 민요와 클래식 제2강: 러시아 오페라와 발레 / 장일범 (음악평론가, KBS 클래식 FM 장일범의 가정음악 DJ)	대학원 411호
2010. 09. 17.	제1강: 유라시아 지역의 권위주의, 어떻게 볼 것인가? 제2강: 유라시아 지역의 권위주의와 리더십 / 강봉구 (한양대 HK 연구교수)	대학원 411호
2010. 10. 01.	제1강: 한국외교 60년의 발자취 제2강: 한·러수교 20년의 성과와 발전 방안 / 이규형 (전 외교통상부 차관, 전 주러시아 대사)	대학원 411호
2010. 10. 08.	제1강: 러시아 및 CIS 국가 사법제도 및 투자법제 제2강: 러시아 및 CIS 국가 투자 시 법적 유의사항 / 이화준 (법무법인 율촌 러시아 변호사)	대학원 411호
2010. 10. 15.	제1강: 러시아 철도현황과 향후 발전 전망 제2강: 유라시아 철도와 한·러협력 / 나희승 (한국철도기술연구원 기획정책부장)	대학원 411호
2010. 10. 22.	제1강: 문법으로 본 러시아어의 언어적 세계상 제2강: 어휘로 본 러시아어의 언어적 세계상 / 홍택규 (한림대 러시아학과 교수)	대학원 411호
2010. 10. 29.	제1강: 유라시아 에너지 정치경제학에서 러시아의 위상과 정책 제2강: 동북아 에너지 협력에서 한국과 러시아의 역할 / 류지철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정보통계센터 소장)	대학원 411호
2010. 11. 05.	제1강: 러시아의 정당체제 제2강: 세계질서와 미·러관계 / 유진숙 (배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대학원 411호
2010. 11. 19.	제1강: 러시아의 영혼, 보드카 제2강: 러시아의 걱정, 결투 / 문준일 (경상대 인문학연구소 연구교수)	대학원 411호
2010. 11. 26.	제1강: 러시아의 세계전략 제2강: 러시아의 유럽정책 / 고상두 (연세대 지역학협동과정 교수)	대학원 411호
2010. 12. 03.	제1강: 레프 톨스토이 다시 읽기 - 레프 톨스토이와 블라디미르 솔로비요프의 논쟁 제2강: 러시아 아방가르드 문학과 미술의 대화 / 박종소 (서울대 노어노문학과 교수, 러시아연구소 소장)	대학원 411호
2010. 12. 10.	제1강: 유라시아 시대 시베리아와 한반도 제2강: 유라시아 시대 시베리아 연해주와 한민족 / 이길주 (배재대 러시아학과 교수)	대학원 411호

콜로키움

- 97차 발표** 2010.9. 용인 글로벌캠퍼스 본관 504호
 “선·후진국에서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특성과 러시아 비즈니스”
 - 김진만(한국외대)
- 98차 발표** 2010.10. 국제사회교육원 연구동 204호
 “러시아 지역 정체성에 대하여: 상트 페테르부르크와 블라디보스톡 비교를 중심으로”
 - 이리나 코르군(한국외대 러시아연구소)
- 99차 발표** 2010.11. 국제사회교육원 연구동 204호
 “러시아 대내외 정책과 HK 연구사업에의 시사점”
 - 서동주(국가안보전략연구소)

- 100차 발표** 2010.12. 국제사회교육원 연구동 204호
 “로컬, 로컬리티와 인문학의 공간: 한국적 시선으로 찾는 장소성”
 - 이명수(부산대 한국민족문화연구소)
- 101차 발표** 2011.1. 국제사회교육원 연구동 204호
 “러시아 지방경제 특성과 지방연구사례”
 - 변현섭(롯데 경제경영연구소)
- 102차 발표** 2011.2. 국제사회교육원 연구동 204호
 “러시아의 극동시베리아 개발과 우리 정부의 대응”
 - 이양구 (국무총리실 기획조정관(전 알마티 총영사))

러시아 정부로부터 푸쉬킨 메달을 수여받은 강덕수, 김현택 교수를 만나다.



지난 1월 31일(월) 주한 러시아 대사관에서 본교 러시아어과 강덕수, 김현택 교수가 푸쉬킨 메달을 수상했다. 푸쉬킨 메달은 옐친 대통령 시절이던 1999년 5월 대통령령에 의해 제정되었으며, 주로 20년 이상 문화, 교육, 인문학, 문학 및 예술 분야에서 탁월한 공적이 있는 내외국인에게 주어지는 상이다. 주한 러시아 대사 브누코프(Konstantin V. Vnukov)는 메드베데프 대통령을 대신하여 그간 한·러 학술 및 문화교류 증진에 기여해온 두 분의 노고에 깊은 사의를 표했다. 엄숙한 분위기의 수여식이 끝나고, 자유롭게 담소를 나눌 수 있는 만찬장에서 제성훈 HK 연구교수가 강덕수, 김현택 두 분을 만났다.

제성훈: 먼저 푸쉬킨 메달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한국외대 러시아연구소가 매 학기 발행하는 뉴스레터는 이번 호부터 보다 생동감 있는 소식과 정보를 전하기 위해 각계 명사들과의 인터뷰를 게재하기로 했습니다. 그 첫 번째 주인공으로 두 분 교수님과 인터뷰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우선 독자들을 위해 이 메달의 의미를 간단히 설명해주시겠습니까?

강덕수: 우리 식으로 간단히 말하자면, 문화교류 또는 문화수교 훈장 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주로 양국 간 문화교류에 기여한 사람들에게 수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택: 또한, 이 메달은 러시아어와 러시아 문학, 예술, 문화 등을 오랜 기간 동안 연구하고 또 전파하여 양국관계에 기여한 학자들에게도 수여하는 것 같습니다.

제성훈: 한 대학, 그것도 한 과 소속의 두 학자에게 메달을 수여한 것이 매우 이례적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동양권 학자들에게는 더더욱 그렇고요. 그만큼 기쁘고 또 의미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메달 수상에 대한 소회를 말씀해주셨으면 합니다.

강덕수: 지금은 작고하신 본교 러시아어과 교수님들과 이 기쁨을 같이 하고 싶습니다. 특히, 김현택 교수와 함께 수상했다는 것은 이 메달이 단순히 우리 두 사람에게 주어진 상이 아니라, 설립 60 주년을 앞두고 있는 학과 전체는 물론, 작고하신 동안, 김학수, 이철 교수님 등 선배 교수님들의 노고를 인정하는 상이라는 의미입니다.

김현택: 저도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선배이자 은사이셨던 교수님들이 어려운 시기에 선구자적 역할을 하셨지만, 세월이 좋아져 상은 저희 제자들이 받게 된 것이지요. 어려운 시절에 묵묵히 러시아

연구를 하신 그분들에게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어찌 보면 본교 러시아어과에서 그동안 일궈온 교육과 연구 분야의 성취를 러시아 측이 인정하는 의미도 있는 것 같아서 기쁩니다.

제성훈: 그동안 두 분 교수님이 한·러관계에 기여하신 공로를 생각한다면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두 분 교수님께서 러시아어를 배우시고, 러시아 연구를 시작하신 지 어언 40년이 다 되어 갑니다.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시면서 가장 보람을 느끼신 일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김현택: 저보다 더 날카로운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자신의 분야에서 열심히 일하는 듣직한 제자들을 보면 큰 보람을 느낍니다. 학생들을 가르치며 함께 배우는 일만큼 값지고 재미있는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일로는, 제가 아이디어를 내어 2003년에 성사시킨 아스나야 폴라나 문학상 제정인 것 같습니다.



니다. 톨스토이 재단과 삼성전자가 공동으로 제정한 이 상은 러시아 현대문학의 발전에 나름대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모스크바 국제관계대학에 교환교수로 가 있던 2000년대 초 소련 시절과 달리 위상이 크게 위축된 러시아 문단의 현실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와 친분이 있던 레프 톨스토이의 고손자인 블라디미르 톨스토이에게 한국기업이 후원하는 러시아 문학상을 제정하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냈더니 반가워하더군요. 곧바로 정태익 당시 주러 대사와 삼성전자 관계자들에게 이 계획의 의미를 설명했더니 흔쾌히 응했습니다. 그 결과 야스나야 폴라나 문학상이 제정되었고 해를 거듭하면서 권위 있는 문학상으로서 이미지가 제고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러시아 문학의 영향을 많이 받은 한국이 러시아 문학에 진 빚을 갚는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지금 같으면 톨스토이 재단에서 외국기업의 이 같은 제의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매력적인 후원자를 얼마든지 구할 수 있을 테니까요. 아무튼 세계 최고의 전자제품 브랜드 삼성이 세계적인 대문호 톨스토이와 인연을 맺도록 하는데 제가 일종의 촉매 역할을 한 셈이지요.

강덕수: 글썄요. 우선 몇 가지 생각나는 것들이 있네요. 먼저, 수교 직전인 1989년 고리키 세계문학연구소의 초청으로 모스크바를 방문하여 러시아 학자들과 문화교류의 채널을 만든 것이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이 때 모스크바 국제관계대학교도 방문하여 당시 토르쿠노프 부총장(현 총장)과 본교와의 자매결연을 합의하기도 했습니다. 벌써 20년이 넘는 이야기네요. 두 학교의 교류가 아직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면 정말 뿌듯합니다. 2004년 한국슬라브학회 회장 재임 시절 개최했던 상트 페테르부르크 건설 300주년, 한국슬라브학회 설립 20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도 기억에 남습니다. 한국슬라브학회 설립 이후 최초로 국외(상트 페테르부르크)에서 진행된 학술회의였기에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성훈: 그리고 2006년 한-사하친선협회를 설립하시고 지금까지 회장으로 재임하고 계시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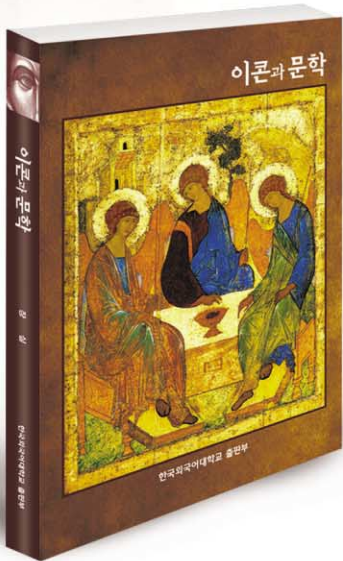
강덕수: 예, 1994년 사하 공화국의 야쿠츠크에 사하-한국학교를 설립하여 그간 한국의 위상을 제고하고 '한류'를 전파해온 것도 참으로 보람 있는 일입니다.

제성훈: 두 분 교수님께서서는 본 연구소 HK 연구사업단의 공동연구원이기도 하십니다. 끝으로 러시아연구소 발전을 위한 제언을 부탁드립니다.

김현택: 본교 러시아연구소는 40년에 가까운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저력도 있고요. 이제는 전통과 저력을 바탕으로 시대적 요구에 맞는 고유의 학풍을 찾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연구주제는 바뀔 수 있어도, 연구방법에 대한 고민은 항상 근본적이고 철학적이어야 합니다. 그러자면 여러 학문분과와 활발히 교류하고, 각 분야의 고유한 방법론들 사이의 연결점을 탐구해야 합니다. 원론적 문제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연구소의 질적 도약을 담보할 것입니다. 또한, 연구 활동의 활성화는 학부와 대학원 교육에도 새로운 파장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세상은 무서운 속도로 변하고 있고, 과거에 중시되던 정보 축적 그 자체는 별 의미를 갖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팩트'의 양기를 강조하던 교육은 점차 설 자리를 잃어 가고 있습니다. 입체적 사고를 통해 문제의 본질에 접근해가는 창의적 능력을 기르는 교육이 필요한 것이지요. 어문학, 지역학 관련 과목이 현실과 호흡할 수 있는 통로를 활짝 열어주면, 얼마든지 새로운 방식의 교육이 가능하다는 것이 제 확신입니다. 심지어는 초급 러시아어 회화나 강독 같은 기능적 수업에서도 학기 중 한 두 차례 정도는 현장 조사나 인터뷰 등을 통해 학생들이 현실과 연결되는 문제들에 대해 고민해보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러시아연구소가 교육과 연구 사이의 이 같은 선순환 고리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강덕수: 늘 잘했으니, 앞으로도 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몇 마디 덧붙인다면, 연구원과 연구소가 함께 성장, 발전하는 방식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연구소 차원에서 할 일이 있고, 연구원 차원에서 할 일이 있을 것입니다. 연구소는 거시적 목표를 향해서 한 단계 한 단계 나아가야 하고, 연구원은 자기가 연구하는 분야에서 모두 '스타'가 되어야 합니다. 연구원들의 아이덴티티를 살리는 공동연구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연구소의 발전만으로 세계적인 연구소가 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비유를 하자면, 축구팀이든, 농구팀이든 팀원들의 수준이 최고가 되어야 팀이 최고가 될 수 있습니다. 조직력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습니다. 조직력과 팀원들의 개인기가 바탕을 이룰 때 가능한 것입니다. 조직력과 개인기가 동시에 겸비될 때 세계적인 팀이 될 수 있습니다.

제성훈: 다시 한 번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바쁘신 중에도 긴 시간 인터뷰에 응해주신 두 분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콘과 문학

장 실 著 (한국의국어대학교 노어과 명예교수)

이 책의 저자인 장실 교수는 오랜 연구 및 교육 경험에서 축적된 러시아 문화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깊은 이해를 이콘이라는 문화적 기제를 중심으로 풀어내고 있다. 이콘은 기독교 신학이론의 열쇠이자 전례의식의 주제이다. 동시에 성서이야기와 성자전 문학의 틀로서 이콘예술이 가지는 언어, 문화적 형상체계는 기독교 교회문학의 범주를 넘어 현대 러시아의 문학예술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본문에 수록된 다양하고 풍부한 시각 자료들은 러시아 기독교 및 토착 문화에 대한 설명을 보다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것으로 만들어 준다. 러시아인의 정신세계와 문화를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인문교양서적일 뿐 아니라, 각 대학에서 러시아 문화 수업 자료로도 매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책이다.

[언론사 서평]

비잔틴 정교의 세례와 함께 생성된 키예프 루시의 정교회 이콘을 소개하고, 이콘의 기원, 그 의미와 사명, 화법과 유형 그리고 이콘이 지닌 문학적 기능을 설명하고 있다. 키예프 루시(키예프 공국)는 9~13세기 키예프 대공(大公)이 지배한 시대의 러시아를 일컫는다. 이콘이 정교회 교리상의 정통성과 러시아 문학의 전통 유산 그리고 러시아 민족정신을 연결해주는 하나의 고리 역할을 했다는 점을 다양한 도판과 함께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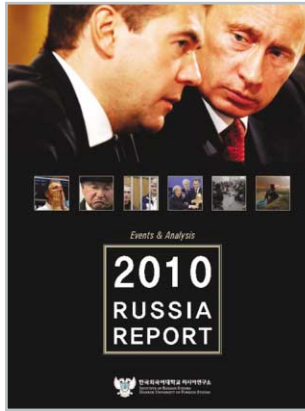
〈조선일보 1월 22일〉

단순히 기존 논문을 풀어쓴 것이 아니라 강의와 연구 성과를 씨줄로, 120여장에 이르는 사진과 그림을 날줄 삼아 꼼꼼히 엮어냈다. 덕분에 흥미로우면서도 촘촘한 이콘 해설서가 탄생했다. 옛 러시아 장인들이 '한 땀 한 땀' 이콘을 수놓는 장면이 그려진다.

〈머니투데이 1월 19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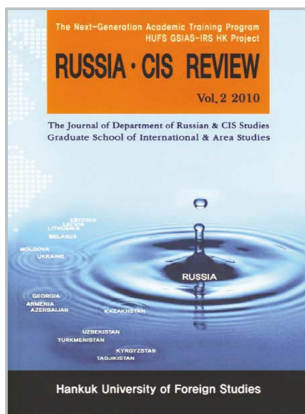
◎ 2010 Russia Report

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연구소 HK 연구사업단에서는 2010년 러시아 정세를 결산하고 2011년을 전망하는 백서 <2010 Russia Report>를 발간하였다. 이 책은 외교·안보(제성훈), 정치·사회(현승수), 경제·통상(변현섭), 한·러관계(서동주) 등 네 분야에 걸쳐 지난 한 해의 주요 이슈와 사건들을 종합하고 러시아 국내상황 및 국제관계의 맥락에서 이를 평가, 진단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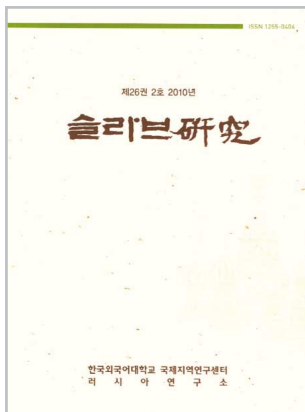
◎ Russia · CIS Review (Vol. 2)

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연구소는 학문 후속세대양성사업의 일환으로 국제지역대학원 러시아·CIS 학과 졸업생들의 석사논문 요약본을 수록한 원어논문집 Russia · CIS Review Vol. 2를 발간하였다. 논문들은 영어, 러시아어, 또는 우즈베크어로 번역되어 게재되었으며 주로 러시아 경제상황과 관련된 주제들을 다루고 있다.



◎ 슬라브연구 (제26권 2호 2010년)

- 숨은 지문의 사회학으로 본 농업집단화와 소비에트 농담민속(Jokeslore) [김상현]
- 러시아 인명(人名)의 특성과 형성과정 [김용환]
- 우크라이나 안보정책의 서방 벡터와 국내 정치적 제약 요인 분석 [박정호]
- 러시아 지방정부의 재정독립성 연구: 기초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조원호]



- 소비에트 시대의 인구변천과 러시아 연방관 구별 인구 변화 [최우익]
- 「롤리타」의 분신과 님펫: 자기 정화와 자기 정당화 [권철근]
- 「소네츠키」의 서사구조와 고전(古典)의 귀환 [김은희]
- The Russian Counterpart to English Do-Support: A Sentence-Initial Marker [Choo, Sukhoon]

◎ Russia & Russian Federation (4호)

본 연구소는 HK 연구사업의 일환으로 러시아 지역전문 매거진 Russia & Russian Federation을 연 4회 발간하고 있다.

4호에는 연구논문 외에 기획특집으로 HK 연구진들이 2010년 7-8월에 수행한 러시아 북서관구 현장조사 리포트가 실렸다.

이 리포트에는 네네츠, 볼로그다, 카렐리아, 칼리닌그라드, 코미 등 5개 지역의 생생한 사회, 문화 스케치와 더불어 앞으로 각 지역 연구의 중심이 될 수 있는 화두가 나타나 있다.

한편, 한·러수교 20주년을 맞아 러시아, 한국, 북한 간의 관계를 회고하는 글과 2010년 여름의 폭염과 화재 당시의 모스크바 상황을 전달하는 글이 특별기고 되었다. 정기적으로 연재되고 있는 「러시아어 Tips」, 「역사상식」 코너 등과 함께 「숫자로 읽는 러시아」와 같은 정보 관련 글 또한 눈길을 끈다.

IRS NEWS

Institute of Russian Studies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용인시 디지털산업진흥원과 MOU 체결

2010년 11월 18일 러시아연구소는 용인시 디지털산업진흥원과 용인시 소재 기업들의 러시아·CIS 비즈니스 지원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체결을 통해 양 기관은 러시아·CIS 비즈니스에 관심 있는 기업들에게 유익하고 살아있는 정보를 제공하기로 합의하였다. 이 협약의 목적은 용인시 기업들이 러시아 및 CIS 지역에서 성공적으로 비즈니스를 펼치고 더 나아가 지역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있다.



러시아연구소와 디지털산업진흥원은 러시아 및 CIS 지역 내 비즈니스가 서방 선진국에 비해 리스크가 높다는 사실을 고려하여 해당 지역 전문가 및 경험자를 초청, 비즈니스 성공 및 실패 사례를 소개하는 등 성공적인 기업진출을 위한 포럼을 분기마다 개최하기로 하였다. 또한 이들 기관에서 제작되는 다양한 정보서 및 콘텐츠를 교류하고 정부 및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프로젝트 등에 공동참여하기로 결정하였다.

인문한국(HK) 연구사업단 소개책자 발간



2010년 10월 6일 HK 연구사업단의 출범을 맞이하여 소개책자가 발간되었다. 제작목적은 '러시아연방 인문공간의 한국적 재구성'이라는 HK 연구사업의 아젠다와 연구목적, 범위, 대상, 그리고 5대 주요사업 및 수행계획 등 HK 연구사업 내용을 대내외적으로 소개하는데 있다.

HK 연구사업단 현판식



러시아연구소 HK 연구사업단은 2010년 12월 8일, 연구소가 자리 잡고 있는 용인 글로벌캠퍼스 국제사회교육원 연구동 앞에서 현판식을 가졌다. 현판식 행사에는 박철 총장을 비롯하여 정일영 부총장, 명희준 용인 교무처장, 김규진 동유럽연구소장, 러시아연구소 홍완석 소장, HK 연구진이 참석하였다. 이 자리에서 박철 총장은 러시아연구소, 아프리카연구소, 언어연구소 등 3개 연구소가 HK 사업에 선정되어 학교로서도 큰 경사임을 강조하였다. 또한 한국외대 연구소로는 처음으로 HK 사업에 선정된 러시아연구소가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세계적인 연구기관으로 준비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HK 연구사업단 3차 & 4차 워크숍



2010년 12월 4일 러시아연구소 HK 연구사업단의 제3차 워크숍이 개최되었다. 용인 글로벌캠퍼스 국제사회교육원 연구동에서 열린 이번 워크숍에는 HK 연구진 11명과 공동연구원 11명, 총 22명이 참석하였다.

제3차 워크숍에서는 2010년 9월부터 시작된 2년차 HK 연구사업의 중간보고와 2년차의 남은 기간 동안 계획된 여러 사업들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HK 5대 사업의 진행 상황과

1>ÄÄv ž... † ½\$` Vè ó=¥ ÄÄ œ†Ä }¿Ü
 È ,0 ê ¥ ÄÄ ĩf ~@³/!ó= ĩ¥ rŽ4
 ^x` z%,¾K...¥œ 1>ÄÄv-!°vV, Íwo... -
 Tvnnfs!Tdippm-!ÄK 4 \äÄjÑ '|_!ó=Ü >
 }¾-!Æ.° † ÄÄbW¥ ÄÄ %f boÄ¶ Žú4
 3³/!½zâ •ÐÀ SÄœ †É½• ÜXö} ½â •¹°
 Xœ% f[x Ž, ilwœ °Xx% ž%½• °Xf
 m}K ¾èÄ³ĭ •6Ä»w Ä>„Ž_K_ĭĭ¾Ž a
 Ä ~œ °Xx ÄÄ ~Mā ¿ÖÄ,³/!
 3K... 41 W Žú4x Ž` ú!o|IL!°Xó=¶
 bW¥ Äĭ ÚW°XüÜ öü•Ž ½x½zâ %Ä} Sa
 Èzâi zâ% o¾vÖ} 0xĭ Ä ~@Ö <•|
 K... Ž@³/!
 45 ú!o¥ Ž4 3122p 2ý 31' 55 ú!oŽ •Ö_@³/
 IL!°XxŠ :-Ä Ž` ú!o|vÉ IL!°Xó=} r
 Q ĭ zâ IL!°Xó=¶Ž ÄÆ † vÖ} ĩ^Äĭ
 wâ% Ä% x ³vœ È,f _@³/!

ÄK Wwój°XœÑ NPV, Ä

3122p 3ý 8' ÄK °Xœœ ÄK yä Ou u!
 Y...ÄÄS ójÄ ÄŠO¥w Ž ÄÄ öÄ Wwój°X
 œ)Jotujuvuf!pg!Fbtufso!boe!Xftufso!Tpdjfu
 ÞÄ-ĭ,w)NPV*x ,ÄÓ³/!ÄK °Xœ JÓx œŠÜ
 Wwój°Xœ 2†€ ,i)S/L/!Ubohbmz difwb*!œ§|
 °Xœ SÄ•Ž :xA fð= Öv ÄÄS íÖ vÖ¥
 ÄÄ xvÄ %x f3³/! %Ä Ü -ô| \$P½• S5
 v>-!Y&ÄÄj% ÚW•Ö-! > ,ĭ g o... @ S -!°
 Xü g Ä Sa †¥ Äĭ É%Ó³/!Ž¥ "ĭ ÄK °
 Xœœ -ô% µ ĩ íÖ ó=zâ Äœ 5ý 9' ÄYàÄ
 wó q B¥w yä Ou u!Y...ÄÄS ójÄ SÄ
 •Ž :-Äœ Y&ÄÄj% x •ÖÆ ½\$Ž³/!



ÄK w¾¿•°^E v> g ...½j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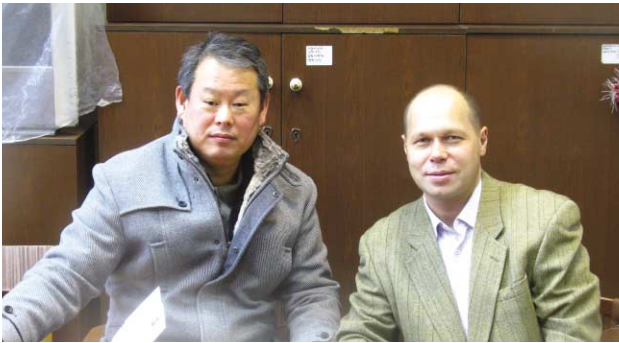
3ý 8' JÓx ÄK °Xœ œ§| Ž€Æ "uZ IL
 °XSÄ-!^Xx ĭ•°XüÜ È °}ñ=µ ÄK Äc
 Ý% T!B!@Æ} Äĭ ~œ yä Ou u! œ© w
 ¾¿•°^E)Dfoufs!pg!TusbufrOp!SufitPöföid
 v>Ó³/!Ž\•p 9ý ÄK °Xœx v>Ä ĭ ~œ !à
 ,«)W/O/!Lozbhjojo*! w¾¿•°^E œ§Ü)\i)W/W/
 [ifmupwb*!°Xµâ'ä Y§| ÄK °Xœ ô%¾v}
 ½x aĭv@³/!öU½• ĭ,•¥w -ô| Öv f
 £Ä ÄÄS g íÖv †¥ Äĭ X,½• %x x Ö
 Ä,³/!



...½jx cĭ w¾¿•°^Eœ ÄK °Xœf •>
 ĭÄÄS ózâ ÜxÄĭ ~œ ÄK 94• °vV
 ,°Xx ĭl èvœö Ä} g &Ü} ?èÄ-³-Ä Ä
 >½-!O;½ Mö} V,â Ä,³/!â© !à,« œ§|
 ÄK °Xœf o...Äœ V...xSvttjbdDJT!Ń pēdv.ty
 xSvttjbb!Svttjbo!G¥qfs,üÄjpbÄYàÄ Y
 &v@ÄÄü Ä •¥¶ äp•} Ä,â &•Ó³/!

ÄK ÄY4>_ ^E v> g íÖv %

3ý 9' JÓx œ§Ü ^Xx ĭ•°Xü| yä Ou
 u!Y...ÄÄS WvÄ öÄ ÄY4>_ ^E)Dfoufs!gps
 Lpsfbo!Mbohvbhf!boe!Dvmuvsf*x v>Ä- šui µ)T/
 Lvscbopw*!SÄÑ ŠÑ³/!•p :ý ÄK °Xœ¥wnÄK
 ¥w% ÄYÄ °XWÖžIœ V&â •°Ä ĭ ~œ šu
 ĭ µ SÄÑ ÄK °Xœ 'Ö|wW % x Äf¹
 ;ĭ o¾` ð:% Oz½ íÖv ¥ Äĭ %Ä,³/!Ž
 œ€¥w -ô| yä Ou u! ÄÄS ÄYÄ ¾Üœ•Ü
 ÄYàÄ 4Ü Ä •Ž \$,½zâ yU S ÄÄ ~œ
 SaÄ µâw¹} ^xÄœ = É%Ó³/! Ä ÄK °
 Xœœ šui µ SÄx °Xœ¥w o...Äœ ÄY°X



재단 등재학술지 「슬라브研究」의 편집위원으로 위촉하였으며, 쿠르바노프 교수는 러시아연구소 측에 논문을 정기적으로 기고할 것을 약속하였다. 한국어문화센터 측은 한국동북아재단에서 후원하고 센터가 주최하는 국제학술회의에 한국의 저명학자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러시아연구소가 훌륭한 발표자를 적극 추천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 학술회의는 이번진 러시아 초대공사를 추모하는 의미에서 오는 8월 상트 페테르부르크 대학교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학술회의 주제는 ‘러시아와 한국: 외교관계의 기원(Россия и Korea: у истоков дипломатических отношений)’이다.

코트라(KOTRA) 모스크바 무역관과 향후 협력 논의



2월 11일 홍완석 소장은 모스크바 주재 코트라 무역관을 방문하여 노인호 본부장과 서기원 부관장을 만나 두 기관의 협력방안에 대해 밀도있는 논의를 진행하였다. 두 기관은 계간 「Russia & Russian Federation」의 공동발간, 러시아연구소 소속 연구원의 코트라 무역관 파견 시 연구공간 제공, 코트라 측의 논문 기고와 연구소 발간물에 대한 실질적 지원 등 광범위한 협력방안에 대해 원칙적인 합의를 하였다. 이와 함께 양측은 연구소에서 발간하는 간행물들을 제공하고 이를 현지 한국기업에도 배포하는 등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는 방안에도 숙의하였다. 또한 양측은 논의된 내용들을 구체화하고 실질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추후 양해각서를 체결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는 김준석 책임연구원이 배석하였다.

이윤호 주러 한국대사와 회동

2월 11일 홍완석 러시아연구소 소장은 주러 한국 대사관을 방문하여 이윤호 대사를 면담하는 뜻 깊은 자리를 가졌다. 홍완석 소장은 한국외대 러시아연구소와 인문한국(HK) 연구사업에 대해 상세히 소개하였고, 이윤호 대사는 러시아연구소가 오래된 역사와 뛰어난 학문적 역량을 가진 연구소인 만큼 국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연구소로 거듭날 것을 당부하였다. 이윤호 대사는 또한 러시아 연구소에서 발간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수준 높은 학술지 및 정보지 발간을 격려했고, 특히 연구소가 준비하고 있는 83개 연방 주체 총서 출판에 대해 깊은 관심을 표명했다.



아시아·아프리카 연구소 한국학센터 소장과의 만남

2월 12일 홍완석 소장은 김준석 책임연구원과 함께 모스크바 국립대학교 산하 아시아·아프리카연구소(Institute of Asian and African Studies) 한국학센터(International Center for Korean Studies)를 방문하여 레샤코프(P.S. Leshakov) 소장과의 만남을 가졌다. 두 기관은 학생 및 학술지 교환, 칼럼 상호기고 등 향후 협력방안에 대해 폭넓게 논의하였으며, 실질적 협력성과를 낼 수 있도록 가까운 시일 안에 양해각서를 체결하기로 합의했다. 양측은 모스크바 국립대학교에 한국어과가 개설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한국어과의 설립을 위한 제반 방안 마련과 이에 대한 러시아연구소 측의 지원 등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이번 3월 한국을 찾는 레샤코프 교수는 이 기간에 러시아연구소를 방문하고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학생들에게 특강을 할 예정이다.



한-러 자치단체 국제교류 활성화 세미나

- ◆ 일 시 : 2011년 4월 1일 (금)
- ◆ 장 소 : 한국관광공사 3층 T2아카데미
- ◆ 주 최 : 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연구소, 전국시도지사협의회

프 로 그 램	
13:30 ~ 14:00	등 록
14:00 ~ 14:30	[오리엔테이션] 교육과정 소개 / 개회사 / 축사
14:30 ~ 15:30	[강연] 21세기 한국, 왜 러시아인가? 연사: 홍완석(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연구소장)
15:30 ~ 15:40	Coffee Break
15:40 ~ 17:00	자치단체 교류 사례 발표 및 토론 사회자: 제성훈(러시아연구소 HK 연구교수), 발표자: 손은정(충남도청 경제통상실) 토론자: 김진만(러시아연구소 초빙연구원), 조미령(인천시 국제교류센터 국제사업팀 과장)
17:00 ~ 17:10	Coffee Break
17:10 ~ 17:50	[강연] 한러 지자체 교류: 러시아의 시각 연사 : 알렉산드르 보스트리코프 (주한 러시아대사관 참사관)
18:00 ~ 19:00	만 찬

< 국제학술회의 공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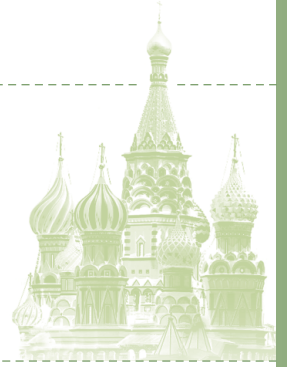
- ◆ 주 제 : 글로벌 시대 러시아와 한국 사회문화 비교
- ◆ 일 시 : 2011년 4월 8일 (금)
- ◆ 장 소 : 한국외국어대학교 서울캠퍼스 대학원 4층 BRICs 국제포럼장
- ◆ 주 최 : 한국외대 러시아연구소 HK 연구사업단

본 국제학술회의에는 러시아 동서사회연구소 소속 학자들과 일본의 러시아 전문가, 한국외대 러시아연구소 측 학자들이 참가하여 오늘날 러시아 사회와 문화의 특성 및 문제점에 대해 논의한다. 또한 한국사회 전문가들도 초청하여 양 사회의 심도 있는 분석과 비교를 시도할 것이다. 이번 회의는 2개의 주제발표 세션과 1개의 라운드 테이블로 구성될 것이며, 젠더와 이주문제, 다문화사회의 특성, 글로벌 시대의 사회·문화 변화과정 등이 논의될 것이다.

※ 자세한 사항은 추후 러시아연구소 홈페이지(<http://www.rus.or.kr>), 이메일 등을 통해 공고

슬라브研究

논문투고안내



「슬라브研究」는 학술진흥재단 등재학술지로서 연 4회(3월 30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0일) 동유럽과 러시아 및 CIS지역의 어학, 문학, 정치, 경제, 사회, 역사, 문화 분야에 관한 참신하고 깊이 있는 연구논문을 실고 있습니다.

- 『슬라브研究』 발간일 : **6월 30일** (제27권 제2호)
- 논문 투고 마감일 : **4월 20일**

「슬라브研究」에 기고를 원하시는 동학제현께서는 논문 제출기한에 맞춰 본 연구소 이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세한 논문 투고요령과 심사규정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 기고와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투고시 필수기재사항

- 1) 논문 영어 제목
- 2) 논문 키워드(국문3개, 영문3개)
- 3) 관심분야 3가지(국문)

- 홈페이지: www.rus.or.kr
- e-mail: irspress@hanmail.net
- Tel: 031-330-4895, 010-6247-1434

항상 왕성한 학문적 성취를 기원드리며 소중한 옥고 기다리겠습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연구소 「슬라브研究」 편집위원회 드림.



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연구소
INSTITUTE OF RUSSIAN STUDIES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